

2009. 21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9. 7. 13 발행인 : 한홍순



## 싣는 순서



❶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❷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7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2
❸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3
> 마리아사업회	14
>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16
>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16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17
>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17
> 한국 매리지 앤카운터	20
❹ 교황님 말씀	21 · 22



## 알 림

◎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오는 9월 11일(금)~12일(토) 제주교구 이시돌회관에서 열립니다.



## ④ 제3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가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가 주최한 제3회 우리성가 작곡공모의 최우수상에 조찬미(레지나, 대전교구 대천성당) 씨 작 ‘소록도천사’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지형규(요한, 군종교구 비성대성당) 씨의 ‘주님 말씀 하셨네’, 장려상에는 허정아(헬레나, 수원교구 광북성당) 씨의 ‘마음’, 박수진(안젤라, 인천교구 구월1동성당) 씨의 ‘기도’, 김현훈(베드로, 부산교구 복산성당) 씨의 ‘축복의 미사’와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각각 뽑혔다.

이번 심사에는 고승익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박영희 교수(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 이돈웅 교수(서울대학교), 허영한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내외 중진 신자 작곡가들이 참여했다.

최우수상에는 2백만 원, 우수상에는 1백만 원, 장려상에는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시상식은 6월 17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에서 수상곡 발표회를 겸들인 미사(염수정 주교 집전)로 열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실시한 작곡 공모에는 50여 편이 응모했으며, 제1~3회까지 한국평협이 실시한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뽑힌 가사들을 사용하여 작곡하도록 했다.

심사를 맡은 독일 브레멘음대 박영희교수는 “성가 작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어휘에 맞는 리듬과 우리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노래하도록 작곡하는 것”이라며 최우수상을 탄 작품은 아름다운 가사 내용에 맞춰 일반인들이 부르기 좋은 친근한 굿거리장단을 사용, 좋은 시도를 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성가를 미사에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하느님의 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많은 이들이 고민해야 하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이런 취지에서 작곡 공모사업을 앞서 벌이는 것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은 “우리성가 작곡 공모에서 첫해에는 신학생 (김승용 서울가톨릭대학), 지난해에는 사제(임석수 신부)의 작품이 뽑혔으며 올해는 최우수상 수상자로 평신도가 뽑힘으로써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이 전례를 아름답고 충실히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문화예술을 더욱 잘 가꿔, 문화 복음화운동을 펼쳐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평협은 이번에 수상한 곡들을 악보집으로 제작하는 한편 1, 2회 때의 작품들을 연주한 CD를 제작해 전국 각 본당과 평협 및 각 단체를 통해 보급, 우리성가가 널리 불리도록 할 계획이다.





## ④ 한국평협 도농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열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도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쌀을 중심으로)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도농·생명·환경위원회의 주관으로 열었다.

약 200명 정도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심포지엄은 WTO, FTA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식량 자급률이 28%(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고 농촌·농업 현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로 보고, 그 기반 조성을 도농 직거래 활성화에서 찾아보자는 것이 취지다. 또 친환경 농산물 도농 직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농직거래의 안정적 기반 확립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건전한 생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친환경 농산물 도농직거래의 현황과 발전방안(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안양대 교수)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최희종 농림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도농직거래 현장 사례(강성중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사무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패널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직거래 방안이 마련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정부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가톨릭농민회에서 후원한 유기농쌀 1kg 씩이 기념품으로 나눠졌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바람직한 아버지를 위한 ‘성 최경환 가정교실’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생명과 신앙의 터전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구장 사목방침에 따라 가정 안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평신도학교 ‘성 최경환 가정교실’을 마련했다.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참다운 아버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기능을 변화시켜 가정의 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지난 6월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바람직한 아버지, 남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29명의 남성이 참가하여 이 시대에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훈련을 하고 있다.



### 가톨릭 여성을 위한 강좌 마련

지난 6월 16일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여성의 존엄과 평신도사도직’을 주제로 평신도 여성교육이 실시됐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학교의 한 과정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평협 회장인 한홍순 교수가 교황문헌 ‘여성의 존엄’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약 100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시종 열띤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한홍순 교수는 최근의 세계교회 동정을 전하고, “여성은 완전한 인간의 반쪽이며, 그것은 남성도 마찬가지”라며 여성의 활발한 사도직활동을 촉구했다.



###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1학기 수료

지난 3월 9일부터 15주간의 강좌로 진행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이 6월 15일 85명 수료생을 배출하고 1학기를 마쳤다.

평신도 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열고 있는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16개 문헌 전체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한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2학기 과정은 오는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15주 과정으로 시작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대방동성당에서 제2차 선교포럼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신약성경 안의 복음화’를 주제로 제2차 선교포럼을 서울 서서울지역 대방동성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차 포럼에 이어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양해룡 신부가 주제 강의를 했다.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주로 바오로 사도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조명하며, 성인의 선교열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양해룡 신부는 강의를 통해 “바오로 사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 상대의 사정을



잘 알고 느껴야 한다.”며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역설했다.

서울평협은 올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포럼을 열고 있으며, 다음 포럼은 9월중 동서울지역에서 실시된다.



### 좋은영화보기 DVD 대여

좋은 영화를 함께 보자는 취지로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아 교황청에서 선정한 45편의 위대한 영화와 미국주교회의에서 1965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를 중심으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월 실시해온 ‘좋은영화보기’ 상영 프로그램이 지난 5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Ⅱ’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서울평협은 정기상영 프로그램은 종료했지만 상영을 원하는 소규모 단체에게는 장소를 제공하고, DVD도 대여하고 있다. 대여문의 사무국 02)777-2013

### 서울평협 제2차 임원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17일 평협 회의실에서 제2차 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사업들을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들을 미리 점검했으며,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잘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단체 소식

###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 사무실 이전과 담당사제 영명축하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5월 7일(목) 오후 6시 30분 최철수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모여 담당사제 주례로 사무실 축복예식을 가졌다. 이날 조학문 신부는 “새 사무실에서 회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과 친교, 봉사를 이루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고, 참석한 회원들은 넓고 쾌적한 사무실로의 이전을 자축하였다.

또한 담당사제의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6월 25일(목) 오후 5시 가톨릭회관 소성당에서 축하미사를 개최하였다. 1부 미사 후 축하식에서 최철수 회장은 “주보성인처럼 신부님이 가시는 목자의 길이 예수님 말씀 안에 영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회원들과 함께 기원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 서울가톨릭미술가회

#### -평화화랑 확장기념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초대전

지난 5월 27일(수)부터 6월 2일(화)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에서 서울가톨릭미술가회(회장 이광미, 담당 지영현 신부)가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최근 전시관 확장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평화화랑의 재개관을 기념하며 40년간 교회미술발전을 이끌어 온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초대전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전시에는 최종태 교수 등 원로작가를 비롯해 젊은 작가 등 143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전시내용은 ‘평화’를 주제로 하여 서울가톨릭미술가회의 정기전과 마찬가지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판화, 도예, 공예, 섬유, 유리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지구회장단 회의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담당 임기선 신부)는 6월 15일(월) 오후 7시부터 공주 신관동성당에서 지구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김윤성 회장은 회의에서 현재 평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생명 운동'에 지구회장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요청하고 올해 안에 교구 전 지구가 장기기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 참석한 회장들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

김윤성 회장은 또 9월에 열릴 '2009 까리따스 성가 페스티벌'이 지구 본당들의 화합과 일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구회장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평신도들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 한생명 운동 적극 전개, 지구단위 장기기증 신청 추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한생명 운동(현혈, 각막기증, 장기기증)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일)에는 법동, 송촌동을 위주로 동부지구 한생명운동이 전개됐다. 특히 송촌동성당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생명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선교의 역할도 톡톡히 하였다. 법동성당은 지난 사순시기부터 꾸준히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받아왔으며 이날은 현혈도 더불어 실시했다. 이날 동부지구 타 본당에서도 동참하여 지구 내 본당의 일치를 이뤘다.

그동안 탄방동성당(현혈, 장기기증), 공주 신관동성당(장기기증) 등이 한생명 운동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전민동, 둔산동, 대산, 장항, 관저동, 천안 서부지구, 대전 중부지구 등이 '한생명 운동'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생명 운동'은 지구 단위로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우선 받기로 하고,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기증 등록자는 1279 명, 현혈은 245 명이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5회 등반대회 및 자연보호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해도, 담당 김율석 신부)는 지난 4월 18일 제5회 등반대회 및 자연보호 행사를 대구 앞산 고산골에서 개최했다. 총대리 조환길 타대오 주교가 함께 참석하여 단순히 등반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별로 게임을 진행하며 자연보호행사의 일환으로 앞산 고산골 쓰레기 줍기를 했다.

우승한 팀에게는 친환경 세제 등 친환경적 상품이 제공되는 등 이 행사를 통해 단체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찬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 제34회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일 제34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를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 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본당대항전에 13개 본당 19팀이 참가했고, 직장대항은 11개 사업장의 17팀이 참가했으며, 개인대항은 여성, 남성, 부부로 나누어져 전체 11팀 300여명이 참가해 공정한 경기를 펼쳤다.

대회 전날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경기 진행 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마지막 결승전에만 비가 와서 전반적인 경기 진행에는 무리가 없었다. 평협 상임위원회들이 많이 참석하고 경기 진행을 함께함으로써 원활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 성모의 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30일에 성모의 밤 미사를 성모당에서 개최했다. 평협 담당 김율석 마태오 신부가 미사를 주례하고 전례위원회에서 전례를 담당했고, 남성합창단에서는 멋진 화음으로 성가를 봉헌했다. 그리고 문인회 회장 정재숙 소피아 자매가 직접 지은 성모님께 바치는 시를 낭송했다. 제 단체들의 협조로 아름다운 성모의 밤 미사를 성모님께 바칠 수 있었다.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제151차 상임위 및 피정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장춘길, 담당 이영묵 몬시뇰)은 5월 23일(토) ~ 24일(일)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부산평협 제151차 상임위 회의 겸 피정을 실시하여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사랑나눔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피정 지도를 맡은 신요한 영성관장 신부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께 의탁하고 무슨 일이든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23일 밤 영성관 야외 성모당에서 봉헌한 ‘성모의 밤’ 전례에서는 특별히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없었지만 기도와, 찬미, 묵상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 어떤 성모의 밤보다 아름답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전례였다고 모두가 기뻐했다.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 1~2회 복음화아카데미 개최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몬시뇰)는 교구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운동인 비전1030(복음화율 10%, 주일미사참여율 30% 달성운동)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 ‘복음화아카데미’를 시작해 제1회는 지난 5월 25일 진주지구의 신안동성당에서 42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고, 지난 6월 15일에는 창원지구 사파동성당에서 25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교육을 실시했다.

마산교구는 지역적으로 복음화율이 타 교구에 비하여 낮고, 무엇보다도 평신도의 의식과 사명을 먼저 깨닫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복음화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됐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복음화아카데미는 바오로사도를 본받아 평신도가 새로운 회심으로 다시 태어나 선교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모험적 교육프로그램이다. 마산교구평협 복음화분과에서 기획하여 선교원론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평신도가 참여하였으며 선교의 방법과 연구 체험사례 등을 함께 나누며 교구 복음화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산교구평협이 평신도에게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새 출발 운동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려는 실천 의지를 읽지 않도록 많은 기도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별히 복음화의 모든 재원은 마산교구평협의 복음화 자문위원회에서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음화 노력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

사도바오로 탄생 2000년을 기념하는 바오로의 해를 맞아 마산교구에서는 여러 가지 바오로사도의 선교열정을 본받기 위한 교육과 행사를 실시했는데 특별히 2008년 10월에 실시한 ‘바오로문화제’ 와 이번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는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

이형수 몬시뇰)에서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지난 6월 27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3,5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현된 ‘마산교구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부속 행사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실천 했기에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폐막미사는 ‘청소년음악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전시회’ ‘바오로서간 성경필사본 본당별 전시회’ ‘성경퀴즈 골든벨’ ‘영성특강’, ‘폐막미사’로 구성하여 열광적인 반응과 성공적인 대회로 마칠 수가 있었다.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 성경쓰기’는 각 본당별 부스를 설치해 모두 함께 바오로사도의 열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는 각 본당별로 실시해 우수작을 폐막미사에서 전시하고 폐막미사 중에 시상하는 축제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에 관한 ‘성경퀴즈 골든벨’은 각 본당에서 선발된 우수한 대표자가 참석하여 200 명의 결선참여자들이 각 본당의 열띤 응원 속에서 결선대회를 갖는 뜨거운 호응으로 행사의 열기를 높여줬다. 이어서 ‘사도바오로의 선교열정’이라는 주제로 인천교구 차동엽 신부의 영성특강으로 완전무장을 하고 지난 일 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미사’에서 사도바오로의 회심과 선교열정을 묵상하는 마산교구복음화의 새로운 임태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구장인 안명옥 주교가 주례하고 40여명의 교구사제가 공동 집전한 폐막미사에서는 ‘마산교구의 새로운 희망을 사도바오로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교구장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특별희년의 전대사를 받으며 은총의 해를 마감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바오로해’ 성경경시대회 개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김종주 신부)는 바오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5월 23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74명이 응시한 가운데 성경경시대회를 열었다. 지난 해에는 바오로해를 시작하면서 바오로 서간을 중심으로 성경필사운동을 전개하여 1,5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전시회를 가진 바 있었다. 경시대회는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을 맞아 교황님께서 특별히 희년을 선포하신 뜻을 기념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믿음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고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 51문항의 문제풀이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시험을 마친 신자들은 문제풀이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오로 서간을 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김종주 신부는 강론을 통해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성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러분이 필사를 하고 읽고 문제를 푸는 그 열정과 정성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채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말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문제풀이에 열중하는 응시자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한편 6월 29일 바오로해 폐막미사에서 성경경시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바오로상으로 나누어 시상했고, 노정숙 사비나(영광본당) 자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아 많은 축하를 받았다.

### ‘바오로해’ 폐막미사

바오로해 마지막 날인 6월 29일 임동주교좌성당에서 광주대교구가 주최하고 광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하는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성년은 폐막이지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 삶 안에,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안에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시도록 되새기자”라며 “살아있는 작은 바오로 사도가 되어 선교사명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 원로사제와 만남의 시간 가져

천주교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황순자, 담당 김종주 신부)는 은퇴하여 지내는 교구 내 원로사제를 찾아뵙고 담소를 나누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전 교구장이신 윤공희 대주교를 모셨고, 6월 17일에는 박상수 신부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윤공희 대주교님과 즐거운 시간





## 지구 소식

## 목포지구 합동 성모님의 날

목포지구평협(회장 김경민, 담당 고재영 신부)은 5월 24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목포지구 내 12개 본당 3,200여명이 함께 모여 성모님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가졌다. 북교동 이옥수 주임신부의 총 진행으로 여러 차례 리허설을 가졌고, 7개의 단체가 결성되어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며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지구 내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여에 이르는 동안 성모님과 함께한 은총의 시간이었다.



## 동부지구 체육대회

동부지구평협(회장 박상배, 담당 장세현 신부)은 5월 24일 광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부지구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풍선 터트리기, 2인삼각 경기, 전통놀이 등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 단체 소식

## 운전기사사도회 20주년 창립행사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회장 최옥호, 담당 안성완 신부)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0일 평생교육원에서 20주년사 발간 및 창립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오전에는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음식나눔 후 오후에는 회원들이 함께 모여 체육행사를 가졌다.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도입 40주년기념  
꾸르실료 윈드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주간 나현식, 담당 윤빈호 신부)은 꾸르실료 운동이 광주대교구에 뿐만 아니라 전국乃至 세계에 넓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해를 맞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5월 23일 광주 금호고등학교 죽호관에서 꾸르실료 윈드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꾸르실리스파 7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가, 클래식, 가요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들이 연주되어 흥겨운 화합의 한마당을 이뤘다. 이 외에도 사무국에서는 본당 연결 고리기도 봉헌 중이며, 도보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 여성산악인회 시각장애인들과 산상미사 봉헌

광주대교구 여성산악인회(회장 위현숙, 담당 김종주 신부)는 지난 6월 2일 시각장애인 30여 명과 동반하여 무등산 늦재로 산행을 한 후, 담당사제의 집전으로 산상미사를 봉헌했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전주교구 평협임원과 본당 사목회장 피정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훈 몬시뇰)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평협임원과 본당 사목회장 등 40명을 대상으로 피정을 가졌다. ‘부르심과 응답’이라



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에서는 천호성지 김영수 관장신부의 지도로 영성 피정을 했다. 첫째 날은 촛불묵주기도를 시작으로 김영수 신부의 강의와 성체강복, 고백성사 등의 일정이 대침묵 속에서 이뤄졌고, 이튿날에는 성인묘지 앞에서 묵상기도를 바친 후 두 번째 강의와 파견미사로 일정을 마쳤다.

김영수 신부는 강의를 통해 “친교를 명분으로 삼아 일회적이고 가벼운 술자리 모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피정의 기회를 자주 가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평신도를 대표하는 본당사목회장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방안으로 피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삼위일체 성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성모님이영! 혼디모영! (성모님과 함께 모여서라는 제주 방언)’이란 주제로 교구장 사목교서인 △2007년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소공동체 △2008년도 젊음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 △2009년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소공동체 체험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2007년 8월 제주에서 개최됐던 제1회 KYD를 통하여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제주교구민들이 2010년 의정부에서 열리는 제2회 KYD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봉헌된 성모의 밤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교구장 이한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 교구 성모의 밤 행사와 KYD 십자가 전달식 가져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 고병수 신부)에서 주관하고 청소년 사목위원회(위원장 김석주 신부)에서 기획한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와 KYD(한국청년대회) 십자가 전달식이 지난 5월 21일 저녁 8시 성이시돌



택 주교와 전국 청년 담당 사제단과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특히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 수원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 부산교구에서 온 성지순례객 약 200명도 함께했다.

봉헌 때에 어린이들은 성당별로 성모의 퍼즐그림을 맞추어 만든 성모님을, 청소년은 성경 필사노트를, 젊은이는 KYD 십계명을 봉헌했다.

이어진 KYD 십자가 전달식에서 제주교구 청년들 손에서 의정부교구 청년들 손으로 대회 십자가가 전달되자 성당을 가득 메운 3,000여명이 신자들은 박수갈채와 환호로 내년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고, 2010년 제2회 한국청년대회의 본격적 준비를 알렸다.

대회기를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로부터 전달 받은 의정부교구 이한택 주교는 “한국 청년대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한다.” 면서 “이곳에 와서 십자가를 전달 받으니 그 때 받았던 감동이 다시금 느껴진다”고 말했다.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2009년도 청년 레지오 학교 성료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청년 레지오 단원들을 대상으로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선교 학교를 열었다.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실시된 교육에서 첫째 날은 김완섭 신부의 ‘가정 사목’, 둘째 날은 민병덕 신부의 ‘공의회와 공동체’, 셋째 날은 팽종섭 단장의 ‘창설자 정신이란’, 넷째 날은 양해룡 신부의 ‘성체성사에 대하여’를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조규만 주교의 ‘성모님과 교회’에 대한 특강에 대하여 청년단원들이 열성으로 화답하였다. 연 인원 467 명이 수강하여 87 명의 단원이 수료증을 받았다.



### 2009년도 레지오 1단계 2기 교육을 마친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5월 8일 오후 5시 민병덕 지도신부의 미사를 시작으로 10일 오후 3시 파견미사까지 3박 4일에 걸쳐 아론의 집에서 2009년도 1 단계 2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1단계 교육에서는 첫 날 가톨릭 신학대학의 박준양 신부가 ‘구세사’를 바티칸 박물관과 씨스틴 성당의 그림을 통해 강의를 하였고, 둘째 날 오전에는 조재형 신부가 ‘창조주의 어머니’를, 오후에는 김길수 교수가 ‘순교란 무엇인가’와 ‘순교자 영성’을 강의했다. 마지막 날 손희송 신부가 성사론을 체계적으로 강의했다. 전 단원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에서 119명이 신청하여 115명이 수료했다.

### 2009년도 초임 꾸리아 단장 교육 실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6월 20일과 6월 21일 1박2일에 걸쳐 산하 초임 꾸리아 단장과 교육 미 이수 단장을 대상으로 부천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신임 꾸리아 단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꾸리아 단장 95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첫날 팽종섭 단장의 레지오 마리애 문제점에 대한 3시간의 교육과 그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고, 둘째 날 고상준 교수의 리더십 강의와 서울 세나뚜스 한관섭 부단장의 레지오 마리애 행사 및 기획에 대한 강의에 이어, 토의 결과를 나누는 것으로 교육을 마치고,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하고 모든 교육을 마쳤다.

### 2009년도 레지오 마리애 선교 과정 성료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레지오 전 단원들을 대상으로 6월 1일(월)부터 6월 29일(월)까지 선교 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오후 2



시부터 4시까지 매주 실시된 교육에서 첫째 날은 양해룡 신부의 ‘세계화와 선교’,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차동엽 신부의 ‘선교와 그 방법’, 넷째 날은 팽종섭 단장의 레지오 마리애 선교, 마지막 날은 서울대교구 사무처 하인호 부장의 ‘행복자 관리와 교적 정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5 주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연인원 1,200 여명이 강당을 가득 채워 한여름의 열기를 더 했다.

## 2009년도 세나뚜스 직속 꾸리아 간부 직책 교육 실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5월 19일(화)부터 5월 21일(목)까지 사흘에 걸쳐 명동 소성전에서 세나뚜스 직속 6개 꼬미씨움의 65개 꾸리아의 부단장, 서기, 회계의 직책 교육을 실시했다. 부단장 교육은 세나뚜스 한관섭 부단장, 둘째 날 서기교육은 정지오 세나뚜스 서기, 마지막 날 회계 교육은 한휘운 세나뚜스 회계가 맡았다. 참가자는 부단장은 53명, 서기는 51명, 회계는 54명 이었다.



### 마리아 사업회

#### 빛을 따라온 길 – 한국 포콜라레 40주년 기념행사

지난 6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는 한국 포콜라레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가

톨릭교회의 어른들,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와 종교의 대표들 그리고 전국에서 참석한 3천여 명의 포콜라레 회원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경험담과 남녀노소가 함께한 합창단 공연, 오케스트라 연주와 연극, 춤, 풍물들을 통해 40여 년 전 한국에 떨어진 포콜라레의 작은 씨앗이 성장해온 모습을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어린 아이에서 학생, 주부, 국회의원,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남녀노소, 신분과 종교를 초월한 3천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의 제1부는 이제는 은퇴한 당시의 젊은 사제, 수원교구의 심영택 프란체스코 신부와 당시 심신부의 편지를 통해 한국 포콜라레의 출발점이 된 차영숙 소피아씨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됐다.

한국 포콜라레의 첫 페이지를 주제로 한 제1부 행사 종료마 본부에서 방문한 디오니시오 코살씨와 빠체 나지르 씨가 포콜라레의 회장 엠마우스 보체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포콜라레 운동의 창시자 끼아라 루빅이 1982년 1월 1일 한국 방문 중 쓴 일기를 인용한 메시지에서 엠마우스 보체 회장은 ‘한국의 과제는 아시아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며, 포콜라레의 모든 회원이 사랑하는 생활에 있어 ‘열차의 객차가 아니라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40년 동안 한국 포콜라레가 지나온 자취를 돌아보는 제2부에서는 여름 휴가기간 중 3박4일 동안 이루어지는 포콜라레의 대표적인 모임 마리아폴리를 돌아보는 경험담을 통해 포콜라레를 만나면서 바뀌게 된 회원들의 삶이 소개됐다. 성공회 전 서울대교구장 박경조 주교의 이탈리아에 있는 상설 마리아폴리인 포콜라레 운동의 소도시 로피아노를 방문했던 경험담과 김수환 추기경과 한국 포



콜라레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 40년 동안 포콜라레 영성을 살다가 천국으로 떠난 회원들의 삶을 소개하는 영상물은 참석자들에게 이 영성에 따른 삶을 더욱 충실히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

‘한국 포콜라레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제3부는 포콜라레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대중운동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새가정운동, 본당운동, 새인류운동이 소개됐다. 포콜라레의 특징인 경험담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중 운동을 소개한 각 운동의 회원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구호나 활동주의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포콜라레 영성이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졌다고 고백한 대전 교구장 유홍식 주교는 서로간의 사랑과 일치를 사는 포콜라레 ‘친구주교들’의 삶에 대해 들려줬다.

교황 대사이신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함께 미사를 집전한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가 미사 강론에서 한 당부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포콜라레 회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포콜라레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온기를 돌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처럼, 성모님의 일꾼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온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세미나 개최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운동)에 속해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본부 이태리 로마)은 인류의 일치와 보편적인 형제애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 정치인들이 이 운동의 정신을 정치활동의 모토로 삼고 있다. 한국 본부에서 결성한 국회의원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학회 소속 학자들과 함께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이 주창하는 보편적 형제애를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강대학교 법학과 왕상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보편적 사랑을 통한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

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과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더 늦기 전에 찾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치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에서 비롯한다’면서 지난 5년간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과 ‘정치활동은 나의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17대 국회의원인, 차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 안명옥 교수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 보편적 사랑의 정치학”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태리 하원에서 열렸던 “위기의 거버넌스, 보편적 형제애를 위한 정치” 세미나를 소개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개념으로서의 보편적 형제애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방법, 내용, 목적이 다 좋아야 질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며, 정치하는 방법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형제애에 입각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치학자(정 현 교수 (모스크바 대학교 정치학과), 김성곤 의원 (민주당), 이정희 교수 (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진 교수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들은 이러한 정신이 철학적 영역을 넘어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에 감사하며 정치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 운동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심대평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김성곤의원 등 여야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방송에서 생방송되었으며 동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 발제자와 토론자 왼쪽부터 이정진교수, 김성곤의원, 박상돈의원, 왕상한교수, 안명옥교수, 정 현교수, 이정희교수



##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제1기 빙천시안 양성과정 2009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해정 요셉)가 주최하는 “제1기 빙천시안 양성과정 2009”가 지난 5월 23일~24일 (1박 2일) 청주교구 연수원에서 있었다.

이 양성과정은 세계총이사회의 2003년 10월 로마 특별 총회에서 회원 여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회칙에 따라 준비됐다. 한국이사회는 미국이사회가 새 회칙에 맞춰 개발한 양성교육 자료 「희망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도입하여 번역을 마치고 빙천시안 양성과정 교재로 사용할 계획이다.

「희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빙천시오회 창설자 프레드릭 오자남과 빙천시오 성인의 영성, 정신적 유산을 확고하게 심어주고자 제작됐으며 교육용 비디오와 양성지침서로 구성돼 있다.

양성과정은 비디오 상영과 토론, 기도, 묵상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빙천시안의 소명. 영성. 역사. 사명. 회칙 등 5단계를 거친다.

양성과정은 세계총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빙천시오회 한국도입 50주년을 맞는 빙천시오회가 거듭나기 위해 세운 계획이며, 이 프로그램이 회원의 빙천시안의 영성 심화를 위해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청년 빙천시안 피정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가 주최하는 한국 청년빙천시안 피정이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춘천교

구 강촌성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피정에는 서울, 수원, 대구, 대전, 춘천, 광주, 제주지역 청년빙천시안 40여명 참가하여 성 빙천시오 아 바오로회 사랑의 땅회 이자희 요셉 피나 수녀의 지도로 함께 했다.

이번 피정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마련되어 우리에게 과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몇 순위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피정은 마련됐다.

강촌성당 주임 정기원 미카엘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셨다. 가난한 이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입장표 포인트를 쌓는 것이다. 포인트를 많이 쌓고 못 쌓고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심판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포인트를 쌓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청년들 가슴속에 남아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피정을 마무리 했다.



##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1차 회장단, 상임위원 회의개최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전국협의회)는 7월 2일(목) 오후 4시 중림동 ‘가나의 잔치’에서 제1차 회장단·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9개 교구 임원 34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회의, 2부 미사,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의 금년도 중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첫째, 각 교구는 가급적 교구별로 차이가 있는 회계연도를 전국협의회의 회계연도인 12월 말로 통일하기로 했다. 둘째,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는 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 1 일을 전후하여 각 교구 사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금년도 서울대교구에서 첫 시행된 ‘외국인노동자부활 대축제’를 모델삼아 각 교구별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실행계획과 예산 수립을 위해 각 교구에서 차출한 ‘소위원회(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전국 회원들과의 친교를 위한 행사를 ‘피정’ 형태로 개최하고 피정 후 산행이나 성지순례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친교행사는 금년 가을, 서울경제인회가 주관하여 1차로 실시하고 교구별로 순번을 정해 연 1회 전국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 외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후보 추천과 10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인 ‘회장배 사제초청 친선 골프대회’에 교구별로 참여하여 전국 교구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총회는 광주대교구(회장 최상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 임원들은 미사 후 인근 중림동성당을 방문하여 순교성인들을 기리며 기념촬영을 했다.

###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마리에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피정을 가졌다. 대구 한티 피정의 집에서 실시한 이번 피정을 통해 레지오마리에가 복음선교의 사명을 더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수원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창립 20주년

수원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6월 21일 수원교구청에서 미사와 기념식을 실시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수원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성모의 밤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는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지난 5월 28일 저녁 본회 지하성전과 성모동산에서 회원과 봉사자가 함께 모여 성모의 밤 행사를 실시했다. 전대규 신부의 집전으로 진행된 성모의 밤 행사에서는 성모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성모 신심 미사를 통하여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순명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다.

###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 한국가톨릭신문출판협의회 · 한국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합동 피정

한국가톨릭신문출판협의회(UCIP / 회장 황진선)와 한국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 / 회장 오광성) 회원 1백여 명은 5월 15일과 16일, 1박 2일에 걸쳐 서울 합정동 마





리스타 교육관에서 SIGNIS 담당사제인 김영준 신부(평화 방송 주간)의 지도로 연례 합동파정 행사를 치렀다.

파정 첫날 회원들은 아버지와 딸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외화 ‘다리’를 감상했다. 영화감상 뒤 회원들은 바로 딸 수녀회 수녀들의 지도로 조를 편성, 감상소감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회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 파견미사를 마친 뒤 오찬을 함께 하고 귀가했다.

## 가톨릭언론인 신양학교 20기 수료식

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는 6월 10일 명동대성당 문화관에서 가톨릭언론인 신양학교 20기 수료행사를 열었다. 33명의 수료생들은 지난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진행된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과정을 마쳤다. 수료생들과 가족, 가톨릭언론인협의회(UCIP 및 SIGNIS) 회원 등 1백여 명은 이날 문화관 2층 소성당에서 염수정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 위원장)와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혀영엽신부(가톨릭언론인협의회 담당사제), 고준석 신부(UCIP 담당사제)가 집전한 신양학교 파견미사에 참석했다. 수료생들은 이어 정진석 추기경 명의의 수료증을 염주교로부터 받고 가족과 동료회원들로부터 꽃다발과 박수로 축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수료식이 끝난 뒤 문화관 1층 만남의 방에서 축하 만찬을 즐겼다.

언론인 신양학교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0주 동안 매주 한차례 사제와 저명인사,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을 재충전하고 교리를 다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20기에 걸쳐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330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 제9회 가톨릭포럼 개최 - ‘멀티미디어와 인간’ 주제-

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는 6월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9회 가톨릭 포럼 ‘멀티미디어와 인간’을 개최했다. 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와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위원장 조환길 주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가톨릭언론인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지하고도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회 내외 인사들과 정부와 학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많은 방청객들이 포럼장을 가득 메우고 4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했다.

1·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포럼은 가톨릭언론인협의회 부회장인 이석우 평화방송 보도국장이 전체사회를 보았으며 토론진행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먼저 김지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톨릭포럼은 가톨릭언론인들이 신앙과 언론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 실천적 결과물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멀티미디어 시대는 길게 보자면 아직 빛과 어둠이 뒤섞인 여명의 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멀티미디어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말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진석 추기경은 격려사를 통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올해 홍보주일 메시지에서 뉴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에 종사하는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미디어는 공



동선에 봉사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톨릭언론인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조환길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장  
주교는 김민수 신부  
가 대독한 격려사에  
서 “디지털문화가 정  
치·경제·문화에 궁  
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만 반면  
사생활 침해등 여러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디지털 문화의 양면성을 깊이 깨닫고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그 문화의 목적과 척도가 되게 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계의 권위있는 분들이 모여 이 땅의 뉴미디어가 인간의 얼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윤리적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겨레의 양심을 일깨우고 생각을 형성하게 하는 일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멀티미디어와 인간-뉴 미디어 혁명, 소통의 실태와 윤리·제도적 대안은’이라는 큰 주제 아래 1부 ‘멀티미디어(인터넷과 휴대폰 중심), 빛과 그림자’, 2부 ‘멀티 미디어시대의 인간화’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민수 천주교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신부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권 교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나누어야할 사람간의 직접 대면과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서 “그 결과 어린이들의 인지형성에 꼭 필요한 아동기를 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엄밀한 언어를 사용해 통합학문적인 의미론을 가르쳐야 하며, 역사와 종교 등 기본으로 돌아가는 인문학적 교과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윤영민 한양대 교수(정보사회학)가 주제를 발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전 mbc사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사는 기쁨 신경정신과 원장, 유시찬 신부(서강대학교 이사장)가 토론을 했다. 윤교수는 ‘공중론의 관점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은 수동적이고 추종적이던 대중의 시대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공중의 시대로 이끌었다”고 전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공중을 신뢰하지 않고 실명제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시찬 신부는 “인터넷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나 통제없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교류가 일어날 때 더 큰 인간의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는 해마다 홍보주일 전후에 가톨릭 포럼을 개최해왔으며 이 포럼은 갈수록 그 성과와 권위가 더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가톨릭 포럼이 다룬 주제들은 남북화해·학교교육·언론정책·사회통합을 위한 언론과 종교의 역할·공직자 윤리·다인종 다문화 시대·급증하는 자살·생명윤리·빈곤의 대물림 등이다.

### 가톨릭언론인 산악회 5월 성지순례와 등반

매월 한차례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 인근으로 산행을 하는 가톨릭언론인 산악회(회장 최홍운)는 5월 23일 다블류 주교의 생전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서해안의 신리공소를 순례하고 인근 아미산에 올랐다. 또 6월 27일에는 전북 전주의 전동 성당과 숲정이를 순례하고 숲정이 치명자산을 등반했다.





## 한국 매리지 앤카운터

### 대구ME30주년 행사에 한국대표팀 참석하여 축하

매리지 앤카운터(ME) 대구협의회(대표 정문원·상현숙 부부, 나진흠 신부)가 6월 6일 성김대전 기념관에서 30주년 기념 가족모임을 열고, 부부 간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부부 일치는 하느님의 바라심’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ME기 입장 ▲총대리 조환길 주교 주례 기념미사 ▲특강 ▲주제발표 ▲축하무대 및 장기자랑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ME 가족 1000 쌍 이외에도 교구 사제단, 평협 제단체장 등 2500 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ME 한국협의회 대표 이윤식·조윤숙 부부, 김웅태 신부 등을 비롯한 각 교구 대표들도 함께하며 부부일치 운동 30년 역사를 축복했다. 또 최근 발간한 ‘대구ME 30 년사’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조환길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ME 부부의 사명이 있다”면서 “부부 간 헌신적 사랑과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성화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안동교구에 이어 3번째로 ME 주말을 도입한 ME 대구협의회는 1979년 13쌍의 부부를 시작으로 현재 부부 6172 쌍, 사제 128 명, 수도자 143 명의 주말 체험자를 배출했다.

ME 가족들은 대리구별로 장기자랑을 선사해 뮤지컬 ‘라만차의 사나이’를 선보인 1대리구가 대상을 받았다. 사제밴드 (Sursum corda) 공연과 나진흠 신부와 이성석씨의 색소폰 2 중주는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날 가족모임엔 1차 발표팀 부부였던 김창석(토마스)·김영원(레지나)씨 부부가 서울에서 참가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ME 대구대교구협의회는 30년사 책자를 발간했다. 부대표 이영구(실베스텔)·이화연(안젤라)씨 부부는 교구 ME 30돌을 기념해 교구청 까리따스 카페 특별전시장에서 ‘부부 공예전’을 열기도 했다.



### 대전ME 25주년 가족모임 실시

매리지 앤카운터(ME) 대전교구협의회(대표 이기환·이명자 부부, 박요순 신부)는 6월 14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교구 ME 도입 25주년 기념 제12차 가족모임을 갖고, 지난 25년을 성찰하고 올해 기념표어대로 앞으로도 ‘변화와 나눔’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대전 ME는 1984년 8월 제1차 주말을 가진 이후 25년간 144 차 주말을 통해 ME 부부 3352 쌍과 사제 52 명, 수도자 86 명을 배출했다.



‘퍼서 나누어 주어라’(요한 2,8 참조)를 주제로 열린 가족 모임에는 ME 한국협의회 대표 김웅태 요셉 신부와 김태성 루치아노·김희숙 아녜스 부대표, 한국ME상임위원 및 교구협의회와 교구 내 47개 본당 ME 가족 1000여 명이 함께해 은총의 해를 자축했다.

가족모임은 25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각 본당 ME 배너 행진, 주제 발표 및 10/10/10 분 쓰고 10분 대화하기), 상황극 및 축하공연, 25주년 포스터 발표,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의 파견 미사 차례로 진행됐다.

또 올해 제10회 평화방송·평화신문 창작생활성가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국적 모이세팀이 축하공연을 가졌고, 각 본당 ME별로 제작한 포스터를 영상으로 선보이며 그 뜻을 새겼다.

이기환(안드레아)·이명자(비비안나) 대표부부는 “이제 성년으로 자란 대전 ME가 성당 울타리 안에서 신앙인들만의 잔치로 머무르지 않고 ‘부부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 기쁜’ ME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도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오늘날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ME 부부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부부보다도 아름답고 혼인성사 때 약속한 부부 모습을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교황님 · 말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09년 7월 5일 주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전에는 7월 첫 주일을 특별히 그리스도님의 보혈에 대한 신심을 드러내며 보냈었습니다. 지난 세기 존경하는 제 선임 교황님들 중 몇몇 분은 그것을 확인하셨고 복자 요한 23세께서는 교서(Inde a primis, 1960년 6월 30일)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고 기도문을 인준하셨습니다. 부활의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된 피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피를 뿌리는 것은 탈출기에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탈출 24, 8)라고 적혀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과 백성 간의 계약을 나타내고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분명하게 이 문구를 빌려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 28). 그리고 실제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뒤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키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님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참다운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피를 모두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지니고 있는 구원적 가치는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제의 해」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매우 아름다운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흡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9, 11-14)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세기에는 형인 카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바닥에서 하느님께 울부짖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4, 10 참조) 그리고 불행히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울부짖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의와 증오로 말미암아 인간의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으니까요. 언제 인간들이 생명은 신성하고 오직 하느님께만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세상의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흘린 피의 울부짖음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곧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스도님의 피는 하느님의 성실한 인간 사랑의 표적입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서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상처를 응시하며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피의 유언을 받으신 동정 마리아님께서 저희를 도와 해아릴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이러한 은총을 다시 발견하여 충심으로 변함 없는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7월 8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일반 알현시 새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 대하여 하신 훈화 말씀입니다.



▲ 지난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축일에 새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 서명하시는 베네딕토 16 세 교황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제 공식적으로 소개된 저의 새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기본 비전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성 바오로의 서간의 한 구절에서 그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오로 사도는 사랑 안에서 진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우리가 방금 들은 대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 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4, 15) 그러므로 진리 안의 사랑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인류의 진정한 발전의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의 사회교리 전체가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성과 신앙으로 계도된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답고 또 인간답게 하는 가치를 갖춘 발전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교회의 사회교리의 회전 축을 이루는 원리,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는 기준에서 실천적 형태를 취하는 원리” (6항)입니다. 이 회칙은 곧 바로 그 서론에서 정의와 공동선이라는 근본 기준을 상기시킵니다. 정의는 사도 요한이 권고하는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요한 3, 18) 하는 그러한 사랑의 주요 부분입니다.(6항 참조)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善)의 곁에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삶과 연결된 선(善)이 있습니다…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이 둘은, 정의와 공동선은 실천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후자 덕분에 사랑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게 됩니다. 이 회칙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러한 사랑에로 불리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제도적 길이다.”(7항 참조)

교도권의 다른 문현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칙도 우리 세기의 인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분석과 성찰을 이어 받아 계속하여 깊이 있게 다릅니다. 특히 40여 년 전에 바오로 6세께서 「민족들의 발전」에서 기록하신 것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발전」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이정표로서 여기서 위대한 교황님은 인간과 현대 세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결정적이고 언제나 현실감 있는 몇 가지 노선을 이끌어 내십니다. 세계의 상황은 최근 여러 달 동안의 뉴스가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시피 계속해서 작지 않은 문제들과 엄청난 불평등의 “스캔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기울여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의 징표가 드러나 있는가 하면, 다른 편으로는 민족들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을 촉구하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화 현상은, 이런 취지에서,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깊이 있는 도덕적, 문화적 쇄신과 공동선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식별에 착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는 가능합니다만, 단지 그것이 근본적인 윤리 가치들의 재발견을 토대로 할 때 그러합니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책임의 윤리적 토대 위에 발전의 구도를 다시 그리는 새로운 경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회칙은 현대 세계의 광범위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교도권의 권한이 아닙니다.(9항 참조) 그러나 이 회칙은 다가올 미래의 인간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난 중대한 원리들을 상기합니다. 이 중에 첫째로 들 것은 모든 진정한 진보의 중심인 인간의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존중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인간의 발전과 긴밀히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자기 운명의 절대 주체로 여기는 프로메테우스적인 비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결국 환상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공동선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올바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긴박한 세계 상황을 바라 볼 때, 인류의 상당 부분을 덮치고 있는 기아와 식량 안보의 극적인 상황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규모의 극적인 상황은 우리의 양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단호히 대처하여 그것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농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나라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연대적 방안이 틀림없이 현재의 세계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경제-교역과 국제 금융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 시대에 국가들의 정치적 역할과 권력을 주의 깊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는 한 편, 국내와 국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성 있는 참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단체들이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새로운 상조 작용을 하려고 벌인 새로운 노력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사회홍보 수단들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기능 장애와 왜곡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발전을 계획하려면, 모든 이가 경제의 의미 자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지구의 생태적 건강 상태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문화적, 도덕적 위기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는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윤리가 필요합니다. 경제는 이윤만이 유일한 규칙이 될 수 없는 시장 경제에서 무상(無償)의 원리, “선물의 논리”의 중대한 공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모든 이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정치 경제 계획을 작성할 때 도덕적 기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 형성을 전제합니다. 여러 곳에서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무가 없으면 권리라는 독단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갈수록 거듭 강조되는

것은 온 인류가 생활 방식을 바꾸어 환경에 대한 각자의 의무가 그 자체로서 그리고 타인과 관계 안에서 대해서 할 인간에 대한 의무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신안과 이성 간의 대화는 이 가족을 확대하여 사회적 자선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려는 생각을 함께하는 가운데 협력하도록 권장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형제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준과 지침으로 저는 이 회칙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날 세계의 매우 폭넓고 깊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 정치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앞에서 말씀 드린 보조성과 연대성의 원리를 지키는 법으로 규제되며 인류의 중요한 도덕적,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 실현을 확고히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인간은 뺑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질적 재화만으로는 인간 마음의 깊은 갈증을 풀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평은 의심할 바 없이 더욱 높고 더욱 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계획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물질적 성장을 더불어 바로 영혼과 육신을 갖춘 인간의 영적 성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교리가 끊임 없이 언급하는 완전한 발전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추진력 안에 기준과 지침을 갖고 있는 발전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회칙도 인류를 도와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일 가족임을 느끼게 해 주도록 기도합시다.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사회에 대한 봉사에서 행하는 일관성이 있는 복음적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이 며칠 동안 라퀼라에서 회의를 열게 될 G8국가 원수들과 정부 수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이 중요한 세계 정상 회의에서 모든 민족들, 특히 가난한 민족들의 진정한 진보를 위해 유익한 결정과 지침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향들을 교회와 인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의 어머니다운 전구에 맡겨 드립시다.

## 제4회

# 우리성가 노랫말·작곡 공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과 작곡을 공모합니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를 창작하고 육성하여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도록하기 위한 우리성가 창작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노랫말 공모

◆ 응모기간 : 2009년 7월 ~ 10월 31일

◆ 노랫말 내용 :

- ① 사제의 해를 지내며 사제들을 위해 부를 수 있는 내용
- ② 성경과 전례서를 근거로 하며, 신앙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
- ③ 일정한 운율을 갖추어 작곡하기 쉬우며 2~3 절까지 부를 수 있는 길이

◆ 응모자격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와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 상패와 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 / 상패와 상금 30만원

◆ 접수 : 홈페이지 [www.clak.or.kr](http://www.clak.or.kr) > 응모게시판 (접수는 응모게시판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 ■ 작곡 공모

◆ 응모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3월 31일

◆ 당선작 발표 : 2010년 5월 중 발표

◆ 작품 :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선정된 노랫말 중 자유로이 골라 전례에 쓸 수 있는 2성부 이상의 합창곡으로 신자들 또는 성가대를 위한 곡으로 작곡하되, 무반주 합창곡은 3성부 이상으로 작곡할 것.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반주녹음(MR)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시상 -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 선정된 노랫말을 바탕으로 창작곡 공모를 갖게 되며, 당선작은 내년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때 지정곡으로 연주됩니다.